

효천

1학년

테마독서 "감정"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나의 특별한 감정 수업〉 최태림 / 엠앤키즈

사람은 여러 상황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족, 친구, 선생님의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말 상처 처방전〉 조경희 / 엠앤키즈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심코 던진 말에 아이들은 쉽게 상처를 받곤 해요. 말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또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처럼 아이들이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아요.

효천

1학년

테마독서 "감정"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나의 일곱 가지 감정 친구들〉 키아라 피로디/ 보랏빛소어린이

이슬이는 기분이 바뀔 때마다 감정 친구들과 만나요. 일곱 가지 감정 친구들은 이슬이의 기분에 공감해 주기도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는 해요. 이슬이와 감정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헤아려 보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봐요.



〈너 왜 울어?〉

바실리스 알렉사키스/ 북하우스

아이에게는 똑같은 말이어도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져요. 감정에 휩쓸려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통한 벌을 주기보다는 좋은 행동을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깨닫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천

1학년

테마독서 "감정"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내 어깨 위의 새〉

시빌 들라크루아 / 소원나무

학교에 간 첫날, 말하는 새 한 마리가 내 어깨 위에 앉았어요. 끊임없이 말하는 새 때문에 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낯선 환경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적응하고 싶지만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예요. 과연 '나'는 새를 멀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 마음을 다스린다."

- 카이사르 -